범하 스님을 추모하며

성보문화재 보존 기틀 만든 선구자

윤범모
미술평론가, 가천대 교수

"스님, 스님, 범하 스님, 왜 이렇게 서둘러 가셨나요."

슬프다.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아쉬움의 범벅이다. 세수 66세라면, 한참 활동할 전성기의 연령이 아닌가. 정말 경로당에서조차 푸대접 받을 나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 범하 스님의 부음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어야했다. 정말 그랬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별 하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 진정 스님은 별이었다. 깜깜한 밤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었다.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으로 펼쳐진 무한한 창공에서 독자적으로 빛나던 별이었다. 때문에 고독했을 것이다. 가람에서 성보 문화재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포교 사업을 제대로 일구어내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의 가시밭길을 걸었을까.

스님과 나는 학생신분으로 동악에서 처음 만났다. 첫인상부터 스님은 학승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학창시절 이후 나는 통도사에서 머물며 신세를 지기도 했고, 서울에서 만나게 되면 다담을 나누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자 스님은 불교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 우리나라 사찰에도 불교문화 유산 전문가 스님이 출현했구나!"

이는 정말 획기적 사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참선 제일주의의 조계종 분위기에서는 하나의 파격이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화려한 성보문화 유산의 창출이리라. 하지만 전통이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 해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 구슬을 꿰어 뭔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불교는 이같은 역할의 출가승이 절실했다. 바로 그 자리에 범하 스님이 계셨다. 정말 깜깜한 밤의 빛나는 별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범하 스님의 시절인연이 도래했다. 1987년 통도사는 성보박물관을 신축하고 개관식을 거행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한국 불교박물관의 모범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성보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성보박물관 개관 무렵 초대 관장 소임을 맡고 있던 범하 스님의 호출을 받고 통도사로 달려갔다. 나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경험자로서 스님의 박물관 개관 사업을 옆에서 거들었다. 도록에 해설 원고를 쓰고, 작품 진열을 맡는 등 개관 준비에 힘을 보탰다.

정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개관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개관 행사 당일 고승대덕 스님은 물론 수많은 사부대중이 모여 행사장을 빛내주었다. 하지만 나는 개관식 식순을 사전 점검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보통 우리네의 상식 같으면 박물관 관장은 개관식의 주인으로서 환영인사를 한다. 주인으로서 인사 말씀을 해야한다는 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스님은 오히려 사회석으로 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보았다. 그러니까 박물관 개관에 따른 모든 영광은 다른 분들께 돌리고 관장 스님은 개관식에서조차 일꾼처럼 겸손한 자세로 생색을 내지 않았다. 아, 범하 스님!

범하 스님의 전문성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받으면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 나 역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스님과 분과가 달라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박물관 관장으로서 발군의 실력은 조계사 경내에 신축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의 책임을 맡으면서부터다.

스님은 전국 단위의 불교문화재를 재인식시키면서 불교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스님은 통도사에서 괘불을 전시하면서 한국 불화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더니 드디어 불화전집 발행이라는 대작불사를 추진했다.

범하스님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은 〈한국의 불화〉 출판 사업이다. 20년간 공력을 들인 이 40권짜리 불화전집은 대한민국 출판역사상 빛나는 금자탑으로 꼽힐만하다. 광화문 부근에서 개최했던 불화전집의 회향식에서 나는 범하 스님과 석정 스님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할 위대한 대작불사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정말 그랬다. 불화전집은 가람 하나를 새로 창건한 것보다 더 위대한 현대판 문화불사였다.

이 같은 문화 불사를 담당할 전문가 스님이 입적했다니, 그저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나저나 스님의 부재가 왜 이렇게 커 보일까? 왕생극락하십시오! 범하 스님!

社說

종교인 과세, 숙의 통해 이뤄져야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일 매스컴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진화했지만 내부적 검토와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는 당시 논의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5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불씨를 당겼다.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 됐다. 지난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1년 조사보다 30% 가까이 확대된 수치다.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불교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미 '종교인 과세'가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교구본사와 일부 도심 사찰들을 제외하면 복잡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찰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 조세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종교인 과세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섣부르고 조급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당장 세수 확보를 위해 급히 시행할 이유도 없다. 사실 일부 목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아서다. 되려 부대비용만 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여론 몰이'식 제도 시행이 아닌 종교계와의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

불교 사회적기업 확산 필요하다

장기 불황의 시대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자영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해마다 자영업 60만 곳이 문을 열었고, 이중 58만 곳이 폐업했다. 아예 본점이 문을 닫아 지난 한해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상표만 600건에 달한다. 창업 열기는 뜨거웠지만 성공 확률은 3%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전통적인 자영업이 아닌 새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 등 전폭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실천하면서도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불교계도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개최하는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2곳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교사회적기업네트워크데이 행사가 열려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4기 창업아카데미가 진행된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 하다.

또한 불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교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불교계 자살 상담 사례

프로야구 선수이자 故배우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가 자살로 1월 6일 생을 마감했다. 최진실, 최진영 남매에 이어 남편까지 연이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잇달은 죽음으로 다시 자살의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계 상담기관에 접수된 자살 상담 사례를 정리했다.

비관의 습관화 자살 불러… 生의 중요함 느끼세요

자살욕구가 있는 20대 남성

26세 남자는 전화 통화시 자살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을 정도로 자살 욕구가 높았다. 여성상담사에게 상담받으려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상담사에게 상담받으려는 사유를 질문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오랜 상담동안 신상을 비관하며 상담을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에 내담자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격려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내담자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으며 친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새어머니에게 양육됐다.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고교 때는 수차례 가출한 경험도 있었다. 또 막내로서 이종 누나들에게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술을 자주마시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내담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해야 함을 알게 하는 데 중점적으로 상담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 40대 남성

40대 남성 내담자는 1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그나마 생계가 유지가 됐는데 1년 간 일을 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난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절도했고, 재차 절도를 하게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보기가 어려워 감기약을 사모으고 낚시용 회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했다.

상담 전화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자 이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아내와 아들이 의지하는 그 기대만큼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함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데 상담의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한 기억을 떠올려 다시 성실한 삶을 산다면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자 의욕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륜으로 우울증에 걸린 여성

여교사로 목사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친정에 있던 상태였다. 3월 복직 예정인데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교사생활이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내담자는 장녀로서 어머니도 우울증을 겪고 있어 더욱 가슴이 무겁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매일 밤 남편이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내담자에게는 정신과 상담을 권하고 평소 종교인이었던 내담자이기에 종교활동을 권했다. 또 인생 전반에 있어 결혼 생활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 내담자가 받은 충격을 많은 이들도 받고 있음을 전했다.

추후 대구 심리상담센터를 소개했고 매주 1회 상담을 받았다. 약물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도 이혼 하고 다시 활발한 생활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채로 자살충동이 있는 30대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내담자는 부채, 일수이자가 증가되며 압박감으로 인한 심리부담이 컸다.

내담자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으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현재 부모님 중 어머니만 남은 상태로 8살 차이가 나는 언니에게는 신세를 지기 싫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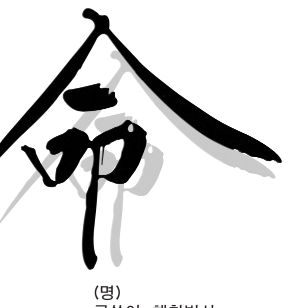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한 끝에 힘들겠지만 생명이 소중하므로 어머니와 언니에게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문의해 채무변재 등을 취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혼자 생활하며 술을 마시고 비관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살위험이 높으므로 술을 자제하고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상담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